



내 어깨를 '으쓱' 하게 한 총장

원혜림 | 전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4학년

내가 우리 전주대학교 이남식 총장님을 처음 만난 곳은 입학식장이다. 4년이 다 되어가지만 내 기억은 지금도 또렷하다. 하얀T셔츠에 청바지 차림의 총장님. 대한민국 어느 대학에서 이런 상상을 가질 수 있을까. 기성세대의 권위적 사고와 신세대의 자유로움은 어느 면에서 상당한 문화적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그것도 대학 총장이 무대에 올라와 댄스퍼포먼스를 하다니... 나는 외국대학도 이런 사례는 드물 것이라 본다. 나는 그 때의 이야기를 다른 대학친구들에게 자랑삼아 이야기를 해 보았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너희 대학총장님이 젊잖아.' '너희 총장님은 정말 신사고를 가진 분이 가 보다' 등 2개의 부류의 답변을 들었다.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것을 보았다. 아무리 젊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디 젊은 대학총장이 한둘인가. 젊다고 신사고를 가지란 법은 없다. 애늬은이란 말도 있듯 젊은 사람이 노티를 내면 더 꼴불견이다. 어떤 사고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대학에 들어와 처음 어깨를 '으쓱' 한 것은 입학식 때 우리 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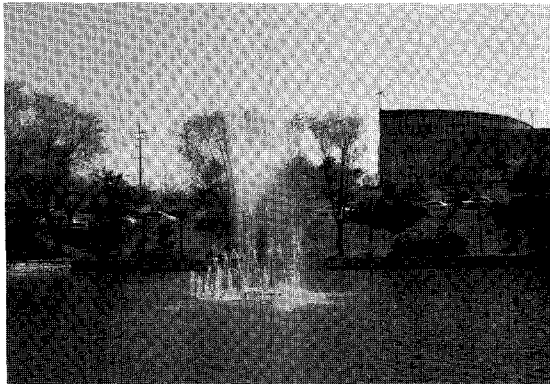
쟁이 총장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대학을 다니며 총장님 때문에 '으쓱'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남식 총장님은 크리스천으로 장로직분을 갖고 계신다. 그는 믿음이 무척이나 충만하다. 아마도 성경적 리더십을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시는가 보다. 몇 번 대화를 하면서 느낀 일이지만 늘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며, 남을 배려하실 줄 안다. 어떤 말을 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스스럼없이 꺼내 서로 나누며, 찬양으로 끝맺음을 한다. 우리 대학교는 매년 '시민감사축제'란 행사를 한다. 이것은 대학이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그 때 총장님이 학생들의 발을 씻어주는 퍼포먼스를 하였다. 마치 예수께서 제자의 발을 씻는 것처럼 정성을 들여 발을 씻어 주신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아무나 하는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리라. 더구나 지체 높으신 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용기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본다. 신앙의 힘은 이런 데서 나온다. 나는 친구들에게 우리 총장

남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어깨를 또 ‘으쓱’ 해 했다.

최근 우리 대학 새로운 정문을 보면 LED전광판이 명물이다.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광고판의 역할은 물론, 우리나라 광고영상의 기술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또한 내가 과학기술의 첨단에서 있는 대학에 다니는 것 같아 기분이 좋

다. 나는 매일 대학의 교문을 들어서서는 순간 기분이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개발에 따라 시원스럽게 뚫린 신정문은 나의 가슴을 활짝 열게 만들고, 내가 가진 이상을 더 넓은 세계로 펼치게 하는 것 같다. 이 정문의 아이디어가 총장님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이웃대학 정문에 LED광고판이 있



Jeonju
University



기에 타 대학에 다니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 작은 사례 하나만으로도 '전주대의 비전이 보인다', '전주대는 앞서가는 대학이야' 등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내 어깨가 '으쓱' 함을 느낀다.

어느 날 캠퍼스에서 사진을 촬영하는데 우연히 이남식 총장님과 한 컷 찍을 기회가 있었다. 친구들이랑 총장님과 진지한 대화를 갖기는 처음이었다. 이웃집 아저씨보다 더 자상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깊이 있게 어디론지 몰입해 감을 느꼈다. 참신한 아이디어, 박학다식한 지식, 놀라운 언변 등은 총장님의 특징으로 자리 잡아 갔다. 꼭 총장님을 멋쟁이라 하지 않더라도 멋쟁이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내가 총장님을 근접해서 대화한 것은 졸업을 하더라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어쩌면 좋은 추억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친구들은 총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다. 때로는 까다롭고 불편한 질문도 하였다. 하지만 총장님은 너무 진지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다. 2003년 4월 25일 부임해서 그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느꼈거나 또는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를 하나씩 말씀해 주셨다. 그는 가장 먼저 '창의적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강조하셨다. 우리 대학은 최초로 시행하는 학사제도들이 꽤 많다는 것도 그 때 처음 알았다. 대학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최초의 CA제도, STAR T프로그램, 캄보디아NPIC 고등교육 수출, 단과대학장 공모 등 많은 학사제도를 알게 되었다. 아마도 총장님의 탁월하고 창조적인 사고에서 만들어진 제도라 보여진다. 나는 이 학사제도들이 잘 시행되고 있음을 볼 때 2012년까지는 학생 만족도 100%를 목표로 하신다는 총장님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총장님은 디자인 전문가이다. 내가 디자인을 전공하기 때문에 총장님에 대한 관심이 다른 학생보다는 많은 편이다. 총장님께서 디자인 관련 대학에 오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디자인에 관한 얘기를 직접 듣지는 못했다. 그는 2003년 총장에 부임하자마자 비주얼 변화를 통해 대학인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말 실감나는 이야기이다. 눈으로 보지 않고는 변화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로고, 상징마크 등 모든 것을 모던하게 만들고 UI시스템을 정립해 전주대가 디자인에 강한 대학이 되었다. 스타타워를 비롯한 각종 건물은 최고 수준의 디자인으로 만들었다. 이런 것이 모두 총장님의 열성 때문이다. 리더 한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더니 총장 한 분이 대학을 이만큼 크게 발전시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다른 대학들이 우리대학교를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우리 대학교보다 더 좋은 대학들은 전주대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야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대학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의사결정을 만들어 내는 일이란 그리 쉽지 않다. 하지만 이남식 총장님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 내신다. 대학평의회를 비롯한 대학 내의 많은 이해 집단이 있지만 슬기롭게 어우러져 미래의 비전을 향해 전진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의 중심에는 늘 멋쟁이 총장님이 계신다. 이제 우리는 세계를 가슴에 안고 멋들어지게 전진할 뿐이다. ■